

“말씀으로 말하게 하자”

- 이용남 목사를 찾아서 -

간힌 이에게 복음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목사님을 찾아뵈는 것은 목사님께서 본 공회에 재직하실 당시에 ‘교도소 성서보급회’를 설립하는 일에 참여하셨고, 그 후에 보급회 회장도 맡으셔서 봉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도소 성서보급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전인 1976년 3월 25일 종로에 있는 중앙감리교회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출발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도소와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들에게 선교를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를 보급하기 위해서 설립된 단체입니다.”

교도소 성서보급회를 설립하기까지는 김찬국 목사님의 산파 역할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교도소 성서보급회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군사정권 당시에 연세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해직당한 김찬국 목사님(현 상지대학교 총장)이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때, 그 안에 신약성경은 있었는데 구약성경이 포함되어 있는 성경전서는 없더라고요. 김 목사님은 구약학 교수인데 교도소 안에 구약성경이 없는 것이 안타까웠답니다. 당시 기드온협회가 교도소 안에 성경을 보급하고 있었는데, 신약성경만을 보급하고 있는 형편이었죠. 김 목사님이 출소한 이후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가 신구약성경을 넣어주자 해서 당시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이 모여 ‘교도소 성서보급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도소 성서보급회가 모금을 해서 성경책 구입 경비의 50%를 대고, 나머지는 성서공회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해서 교도소에 신구약성경의 보급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교도소 성서보급회의 성서보급이 현재 20여 년의 역사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교도소 성서보급회가 설립될 때, 창립 발기인으로는 어떤 분들이 참여하셨습니까?

“당시에 도건일 목사, 유경재 목사(현안동교회), 김종희 목사(경신교회), 배상길 목사(목양교회) 등이 참여했고, 거기다 교도소에서 출감한 이인수 장로가 합세하였습니다. 지금도 이인수 장로(현 보급회 회장)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서보급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김목사님 등이 모금을 해오면, 저는 성서공회를 대신해서 교도소에 보급되는 성경을 50%의 가격으로 할인하여 공급하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 보급회가 전국의 교도소에 성경을 보내지 않는 교도소는 거의 없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교도소 안에 많은 재소자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고, 저도 그들에게 세례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교도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급하다 보면 그 말씀으로 많은 재소자들이 변화 받은 사례도 있을텐데요. 지금도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성경 도둑놈

“어쨌든 당시로서는 신구약성경을 보급하게 된 점이 꼭 고무적이었어요. 당시에는 교도소에 별다른 볼거리가 없는 형편이어서, 많은 재소자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서, 출소할 때 성경책을 가지고 나가다가 간수에게 들켰다고 해요. 교도관은 성경도 교도소의 기물인데 왜 들고 나가느냐고 뺨을 때리며 야단을 치고는 성경도 빼앗아갑니다. 그 후에 그가 ‘나는 성경 도둑놈이었다’라는 글을 써서 교도소 성서보급회로 보내왔습니다. 더 잇아 나같은 성경 도둑놈이 없도록 성경을 충분하게 보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죠. 이 이야기가 기독교방송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많은 모금이 이루어졌고, 더 많은 성경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서보급회의 성서사업을 위해서는 성서를 구입하기 위한 현금이 필요할 텐데요, 이 사업을 위해 어떤 분들이 모금에 참여하십니까?

“회원 중에는 외국인들도 많은데, 지속적 회원보다는 1회적 회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분 중에는 목사님들이 꽤 많은데, 목사님들이 시무하시는 교회 예산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개인들이 더러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보급회에서 일하시는 임원들의 설교나, 특강을 통해 감동을 받아 후원하는 개인들입니다.”

재소자들에게 성서를 보급하였을 때, 그분들이 받아들이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보고되었습니다. 그 한 예로 안양교도소의 경우에는, 우리 보급회가 보내준 성경을 갖고 성경학교를 개최할 정도였습니다. 사실은 현재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는 이인수 장로님도 그 안에서 은혜받고 변화되어 나온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들은 성서를 대할 때 일반 교인들과는 많이 다르겠죠?

“그들은 비교적 단순한 사람들이예요. 생활 방법이 단순하니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정해진 시간에 의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돈 벌어야 할 걱정이라고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보다는 마음이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역설적이라고나 할까? 나도 가끔 교도소에 설교하러 가는데, 조금 어색한 분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에게 괜한 두려움 같은 것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지,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맨날 머릿속에 돈 생각밖에 안 들어있는 데 비해 이들은 단순해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돈 벌어야 하고, 애들 길러야 하는 등등의 복잡한 생각이 있는데

비해 그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잘 받아들여요.

어느 살인범의 성경

전에 성서공회에서 전도지 관계의 일을 하셨던 안국선 목사님이 신문에 보도된 고O종 사건(자기 이모 목졸라 죽인 사람)을 보고, 기도하다가 교도소로 그를 찾아가 성경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고O종 씨가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를 포함한 살인범 등, 중한 죄를 짓고 복역하는 이들이 XX교도소에서 은혜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제가 그 곳을 찾아가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고 나오는데, 그 곳 교도관 중의 하나가 ‘우리 XX교도소는 거꾸로 됐다’고 하더라구요. 그래 제가 ‘무엇이 거꾸로 됐습니까?’하고 물어봤더니, ‘원래 교도관이 하는 일은 죄수들이 답답하거나 상담하러 찾아오면 그들에게 상담해 주는 것인데, 우리 교도소에서는 반대로 교도관이 답답할 때 고O종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고O종이가 성경을 가지고 상담을 해 주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고, 때론 놀라운 답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고 씨를 만난 때가 그가 교도소에 들은 지 4, 5년쯤 되었을 때였는데, 그 친구 얘기가 그때까지 성경을 30번 정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먹고 그것만 한거지,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그의 성경을 보니 손때가 새까맣게 묻어 있었고, 많이 낡아 있었어요.”

말씀으로 말하게 하자

목사님께서 교도소 성서보급회에 거는 기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교도소 성서보급회를 통하여 교도소에 보급된 성서의 반포수는 1994년 4월 말까지 성경전서가 140,818부, 신약전서가 2,565부에 이릅니다. 계속해서 교도소의 갇힌 자들에게 더 많은 양의 성서가 보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보급회가 없었다면, 교도소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해마다 교도소에 보급되는 성경부수가 1만 부 정도라면, 굉장한 수치 아닙니까?”

목사님께서서는 한동안 성서공회에서 봉사하신 경험이 있으신데요. 이 때의 경험이 목사님의 목회에 영향을 끼쳤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성서공회에서 일할 때 세계성서공회연합회(UBS)에서 내건 슬로건 중에 ‘말씀으로 말하게 하자(Let the Word speak)’라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설교 중에도 이 표어를 자주 인용합니다. 비교적 제가 설교 중에 성경구절을 많이 인용하는 편인데, 그것은 제가 성서공회에서 일한 수확 가운데 하나입니다. 목회현장에서도 가급적이면 성경 원문을 많이 인용하려고 합니다. 예화도 가급적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서사업에 대한 바람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성서공회가 성서사업을 잘 해왔으나, 앞으로도 잘 해주리라 믿어요. 다만

요즈음 성경공회가 등장해서 안타까운데,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요. 바람이 있다면, 성서공회에다 전 세계의 성경에 관한 모든 자료와 문헌을 갖추어 놓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면, 성서공회에 가서 성경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성서한국> 1994년 겨울 40권 4호)